

2020년 12월 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
환경부 야생조류 시 대응상황반 팀장 장성현(044-201-7245), 사무관 김태윤(7257) / 제공일: 12월 3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북 부안(조류지)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전북 부안(조류지)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12월 2일 확진*되었다고 밝혔다.
 - * 11월 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
 - 또한, 전남 순천(순천만)에서 11월 3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,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이라고 덧붙였다.
-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곳은 인근 철새도래지(동진강)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기 검출되어 강화된 방역조치(참고)를 적용 중인 지역이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(10월 1일 이후 13건)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”으로
 - “가금농가는 차량·사람·야생조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, 방사 사육 금지,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또한, 환경부 관계자는 “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,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<참고>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

1.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(농식품부, 환경부)

- ① 항원 검출지점(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) 반경 500m 내 사람·차량 출입 금지,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
-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
- ③ 검출 시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(사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)
-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·폐사체 사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
-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
-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,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·관람·보전시설 점검

2. 위험 권역에 대한 “시 특별관리지역” 지정 및 방역조치(농식품부)

*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

- ① 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·소독 강화
 -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, 소형 주차장·출입구에 통제 표시(띠·안내판)
 -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
-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(오리, 산란계, 종계 등)에 대한 차단·소독 강화
 - 가금농장(50m² 초과) 일제검사,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
 - 농장 점검 후 입식 허용, 방역점검,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·판매 금지
- ③ 축산차량(사료·분뇨·출하 등)에 대한 관리 강화
 -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